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학위논문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형태에 대한 사례 연구

2018년 1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강몽우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형태에 대한 사례 연구

지도교수 은기수

이 논문을 한국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강몽우

강몽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월

위 원 장 _____ 한영혜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한정훈 _____ (인)

위 원 _____ 은기수 _____ (인)

〈국문초록〉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형태에 대한 사례 연구

강몽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한국 사회는 빠른 현대화와 경제성장과 함께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정 수가 극증하며 이는 남성은 경제력을 확보하는 유급노동 분담과 여성은 육아, 가사일로 비롯한 무급노동 분담을 했던 전통적 성별 역할 분담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남성은 여성보다 비교적 적은 육아 참여 시간을 분담하였고 최근 들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러한 격차가 줄어들고 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 인식이 높아지면서 육아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가 보인다.

미취학 자녀는 돌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연령층이고 육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다. 본 연구는 현시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의 육아 분담, 육아 경험과 육아로 인해 겪는 어려움, 일-가정 양립 하의 스트레스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현시대의 육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 중 8 사례는 5:5 비율로 비교적 합리적인 육아 분담을 하고 있고 남성의 육아 참여 의식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합리적인 육아 분담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대게 처음부터 남성이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부부간의 싸움과 갈등을 경험하였고 여성은 남편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긴 시간을 걸쳐서 남편과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남편의 적극적 육아 참여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둘째, 모든 대상자는 조부모의 도움과 보육시설 이용 등 대리양육 경험이 있다.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다소의 우려만 제외하고는 대상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엄마들에게 산후우울증이나 아이와 부딪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에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장시간 아이와 같이 있어서 발생하는 충돌 등도 피할 수 있다고 느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많이 밝혀졌듯이, 일하는 대상자와 학업을 수행하는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대상자 중 전업주부인 여성은 모두 출산하기 전에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었다. 경력 단절로 인해 삶의 큰 변화를 느끼고 집에만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지 위해 일-가정 양립을 합리적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국, 육아 분담, 일-가정 양립

목차

1. 서론----------1

2. 이론 배경 및 선행 연구----------5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9

4. 결과 분석----------12

4.1 부부의 육아 분담----------13

4.2 외부 도움을 받는 육아----------18

4.3 육아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32

4.4 육아 분담에 따른 결혼 만족도와 부부 관계 변화----------38

5. 결론 및 제언----------48

참고문헌 ----------55

ABSTRACT ----------62

1. 서론

이 연구는 육아라는 무급노동을 중심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하루 육아 시간과 육아 역할 분담, 육아 방식과 육아로부터 받는 고충과 스트레스 등을 질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현시대의 육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국 사회는 빠른 현대화와 경제성장과 함께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출산율이 가장 낮고, 노동 시간이 가장 긴 OECD 국가가 한국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은 취학 자녀를 둔 가구보다 3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육아로 인해 육아역할 분담, 육아시간 분배 등 가족생활에 많은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과 함께 맞물려 있는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의 역할 분담과 시간분배,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제시되어 한국이 저출산 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서구화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가족가치는 여전히 매우 전통적인 편이었다(은기수, 2006).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 의식이 강해서 남성은 밖에서 유급 노동 위주로, 여성은 집에 머물러 가사노동과

가족원을 돌보는 무급 노동 위주로 나뉘어져 있었다. 자녀 양육도 역시 여성이 전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역할에 속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자녀 양육 시간을 보내왔으며 아직 한국은 다수의 기혼취업남성이 미취학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많지 않는 점이 있다. (김외숙, 박은정. 2012)

최근 들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보편적으로 높아지면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와 사회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성별 역할 분담도 변해야 하는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성들은 밖에 나가 노동을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체로 인식되는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은기수, 2009). 그러나 최근 들어 그러한 역할 분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남성이 점차 육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대사회에 가정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과 역할도 예전과 달리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 문화적 변화에 따라 육아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입증 되었다. (이연승, 최진령, 김현정, 2017; 신용주, 2008). 같은 유급 노동 시간을 갖는 맞벌이 부부여도 퇴근하고 여성이 전반적으로 가사일과 육아 활동을 비롯한 무급노동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양승주, 2005; 이삼식, 2006; 이선명, 여정성, 2016).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 세대는 남성이 퇴근하고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통계청이 2016년에 발표한 “한국인의 생활 시간 변화상” (1999년~2014년) 자료에 따르면, 가족 돌보기 행위를 포함한 가사노동 평균 시간이 여성은 약 30분정도 줄어들고 남성은 평일에 약 10분, 주말에 약 30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20~30대 기혼여성의 가족 돌보기 시간은 평균 36분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가 육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충당할 수 없거나 자녀 수가 많아서 부부가 케어 하기 힘든 상황이 많아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혈연관계가 있는 조부모가 대리양육을 하면 자녀에게 안정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있어서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것 보다 부모들은 조부모의 대리양육 유형을 더 선호한다(이현주, 2007; 정유진, 전귀연, 2015). 조부모가 대리양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린이집 등 시설을 통한 대리양육을 하게 되는 경유가 많다. 현재 한국은 보육시설 이용도가 매우 높다. 통계청 2015년 조사 기준으로 0-5세 영유아는 하루 평균 7시간 16분 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육시설은 한편 취업 여성에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 편리함을 주구, 한편은 학대 등 계속 발생되는 보육시설 사고로 부모들의 걱정과 신뢰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영유아를 기관에

맡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시설 이용에 대한 신뢰도 부족,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시설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느끼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부부들도 많아지면서 조부모와의 육아 방식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도 현대 한국 사회의 미취학자녀를 둔 가족들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과 육아에서의 변화는 이뿐만 아니라 부부서로의 관계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힘든 육아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과 고충에 대해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해 가는 가치관과 육아환경 속에서 이 시대의 미취학 자녀 양육을 수행하고 있는 부모들의 실제 육아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과거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부담했던 육아 시간과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은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을까? 육아를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부부, 또는 고부간의 갈등과 충돌 등 다양한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부는 스스로 어떤 노력과 대책을 모색하고 있을까? 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다양한 육아 경험과 그 경험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 이 시대 한국의 육아 실태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업 주부, 맞벌이 또는

학업 중에 있는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부모가 육아에 있어 공통적으로 겪는 힘듦과 적응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2. 이론배경 및 선행 연구

육아 활동은 무급노동인 가사노동의 중요한 일부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높은 노동 시장 진출이 전통적인 가족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제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여성도 유급노동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많이 검증되었다(Fuwa, 2004; Sayer, 2005; Lachance-Grzela and Bouchard, 2010). 그러나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의식과 가사노동 참여 시간의 증가 추세 또한 사실이다. 2009년 20대~40대 남성의 미취학 아동 돌보기 평균 시간은 1시간 12분이었고 1999년의 평균 1시간 03분보다 9분정도 증가하였다. (통계청, 2016)

남성은 밖에서의 경제적 활동, 여성은 집 안에서의 무급 노동인 자녀 돌봄과 가사일을 수행하는 성별 역할 분담은 성별 역할이 사회화된 “젠더 효과”(gender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Bittman, 2003). 여성과 남성이 분담 무급 노동 내용에서도 성적 역할의 분별이 강하다.

서구에서 “여성의 일”이라고 간주된 밥하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등 노동은 흔히 여성들이 담당하고, 남성은 비교적 시설 수리 등 “남성의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Blair & Lichter, 1991; Mederer, 1993). 일본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에서 그러한 성적 역할 분담은 서구와 똑같이 적용되며 여성은 자녀 먹이기, 씻기기 등 일상적인 필수 육아 노동을 위주로 하고 남성의 육아 활동 중에는 자녀와 같이 티비 보기, 같이 산책 가기 등 “재미 있는”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Masako Ishii-Kuntz, Katsuko Makino, Kuniko Kato and Michiko Tsuchiya. 2004)

남성의 육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선행 연구에서 남성의 교육 수준, 연령, 수익, 성적 가치관과 태도 등이 영향 요소로 많이 고찰되었다. 성 역할에 대한 태도가 아버지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고(김외숙, 박은정, 2012). 또한 가치관과 태도보다는 남성의 유급 노동 시간의 감소 혹은 육아휴직정책 등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환경적 요소가 더 남성의 육아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밝혔다. 즉, 아버지가 미취학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버지의 노동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조미라, 윤수경, 2014; 안수미, 2013; 조미환 · 임정빈, 1997)

결혼생활에서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육아 분담에 있어 상대적 자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대적 자원 이론은 부부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가사노동 분업에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가사노동을 상대 쪽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Fuwa, 2004; Hook, 2006). 가사노동은 육체와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노동이고 그러나 그만큼의 가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노동이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맡고 싶지 않은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해 끊임 없는 협상의 과정을 가진다. (은기수, 2009)

남성의 육아 참여에 성 이데올로기 이론이 있다. 가정 내의 가사노동의 분담은 성별에 대한 관념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성 이데올로기 이론의 핵심이다. 부부가 평등적인 성별 역할 인식을 가질수록 가사노동 분담도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Fuwa, 2004; Hook, 2006). 또한 그러한 성별에 태한 태도는 부모와 사회 주변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크게 적용될 수 있다.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기타 가족원의 행동과 성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고 부모의 성적 가치관을 습득하여 지닐 수 있다. 주변 또래나 사회로부터 받은 사회적 가치관 영양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 이데올로기 이론은 한국 사회의 가사노동 분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은 이론인 것이 입증되었다(은기수, 2009).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가치관이 강했고 기성세대 남성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흔히 찾을 수 있는 아버지상이었다. 윗세대 부모의 가치관과 가족 관계가 현세대 부모의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윗세대 부모의 친밀도가 30대-50대 연령층 여성들의 관계만족도와 결혼 행복 지수와 밀접하게 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윗새대 부모의 가족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소영, 2010; 이여봉, 2010) 그러나 현시대 남성은 그러한 윗세대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봐왔으나 현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가치관이라고 느낀다. 뿐만이 아니라, 현시대 남성은 직장 상사의 성적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느끼고 같은 연령층이어도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 기준이 없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김수정, 조효진, 2016).

출산과 육아는 또한 부부의 결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결혼 생활의 변화와 결혼 생활의 만족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특히 첫 출산 후 육아가 시작되는 시기에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부모가 되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비교적 많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밝혔다. (Belsky, 1985; 고선주, 1996; 고선주, 옥선화, 1994). 결혼 만족도가 하락 되는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소통과 여가 황동 공유가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육아 활동과 여가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이러한 활동이 결혼만족도의 값을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김지혜, 장연진, 김희주, 2013). 따라서 부부가 화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소통방법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외부에서도 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생활과 그들의 주체적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11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1>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 11사례 중 4사례가 40대, 3사례가 30대, 4사례가 20대였다. 자녀 수는 1명부터 4명까지, 양육이 필요한 연령층의 자녀들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었고 대학원을 졸업 혹은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가 3사례가 있었다. 그 중 4사례가 맞벌이 부부이고, 5사례는 외벌이 부부였다. 배우자의 직업은 대부분 회사원이고 3사례의 가족 형태가 대가족인 사례를 제외한 8사례는 핵가족 형태로 지니고 있다.

실제 인터뷰 시간은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됐으며 그 후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녹음을 했으며 녹취물은 인터뷰 진행 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사 작업을 했다.

연구자료 분석방법으로는 현상학적 방법과 인터뷰 대상자 결과 검증 방법(member check) 을 통해 인터뷰 전사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 자료로 정리하여 질문 별, 대상자 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반복적으로 읽어 이를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이야기한 육아 시간과 육아 분담, 대리양육과 타인 양육의 경험, 양육 스트레스와 육아가 가져온 부부관계 변화 등의 경험 중 공통적인 패턴과 특정적인 사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정리한 결과로 4개의 대주제, 10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나의	성별	직업	배우자 직업	학력	자녀	가족 형태
A	28	여	석사 재학 중	군인	석사	자녀1(3살) 자녀2 (3살) 자녀3 (2살)	핵가족
B	40	여	주부	회사원	석사	자녀1(12살) 자녀2 (8살) 자녀3 (4살)	대가족 (친정부모와 거주)
C	26	여	주부	회사원	대졸	자녀1 (0살)	핵가족
D	40	여	자영업자	회사원	대졸	자녀1 (7살) 자녀2 (3살)	대가족 (시댁과 거주)
E	31	여	주부	회사원	대졸	자녀1 (3살)	핵가족
F	31	여	박사 재학 중	회사원	박사	자녀1 (3살)	핵가족
G	40	여	주부	회사원	대졸	자녀1 (7살) 자녀2 (5살) 자녀3 (3살) 자녀4 (1살)	핵가족
H	33	여	주부	군인	대졸	자녀1 (6살)	핵가족

						자녀2 (3살)	
I	29	여	파트타임	회사원	대졸	자녀1 (5살) 자녀2 (3살) 자녀3 (1살)	핵가족
J	29	여	회사원	회사원	대졸	자녀1 (6살) 자녀2 (4살)	대가족(시댁과 거주)
K	40	남	회사원	회사원	대졸	자녀1	핵가족

4. 결과 분석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실제 육아 분담과 협상, 일 가족 양립 경험과 육아를 통한 부부간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육아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대주제와 소주제는 표2와 같다.

표 2. 대주제와 소주제

대주제	소주제
1. 부부의 육아 분담	(1). 평일의 육아 분담 (2). 주말의 육아 분담
2. 외부 도움을 받는 육아	(1). 조부모의 도움 (2).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3.육아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	(1). 육체와 정신적인 힘듦 (2). 자녀 교육 측면의 힘듦 (3). 육아와 개인 삶의 양립
4. 육아 분담에 따른 결혼 만족도와 부부 관계 변화	(1). 남편의 적극적 육아 참여: 처음부터 그랬던 건가? (2). 윗세대 가족으로부터 받은 영향 (3). 육아로부터 부부 관계 변화의 생김: 대화가 없어졌다 VS 대화가 많아졌다

주제 4.1 부부의 육아 분담

(1). 평일의 육아 분담

육아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유급노동시간이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에는 유급노동시간의 차이에 때라 육아 시간이 많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육아 시간 분담에서 우선 평일과 주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인터뷰 대상 사례 중 남편은 모두 직업을 갖고 있는 대상자였다. 여성이 전업 주부인 경우, 낮 시간에 거의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육아 시간을 차지하고 여성이 직장인이나 학업을 수행 중인 경우, 육아는 보통 저녁때부터 취침시간까지 집중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배우자와 육아 시간 분담에 대해 다양한 사례가 나왔고 평일에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직장이 비교적 늦게 끝난 것과의 관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 유치원 보내고, 애들 유치원 안 갈 때 돌보는 것 거의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남편은 사실 11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육아에서 평일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대상자 D)

남편은 거의 밤 11시에 들어와요. 평일에는 애기 봐주는 시간 아예 없어요. 주말에도 남편이 부대를 나가긴 한데, 아침에 나가서 점심에 들어오거나, 저녁에 나가서 밤에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하고 비는 시간에 가족들이랑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동안 거의 저랑 (육아 분담을) 5:5로

해요. (대상자 H)

아빠 오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안 와요. 아빠를 더 좋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아빠가 저보다 훨씬 더 케어를 해줘요. 집에 있는 동안 거의 아빠가 전적으로 돌봐줘요. (대상자 A)

남편은 보통 7시에 퇴근해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같이 도와주거나, 애기 씻기거나, 먹여주거나 이런 거 같이 동참해요. (대상자 B)

인터뷰 대상자 중 남편의 퇴근시간은 18시, 19시와 밤 23시, 24시 두 가지의 시간대가 있었다. 18, 19시에 비교적 일찍 퇴근하는 남편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편이었다. 이들은 아내와 거의 5:5로 육아를 분담하고 3명의 남편은 아내보다 퇴근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 육아를 맡고 있다. 남편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원인에 대해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밤 23시, 24시에 퇴근하는 남편의 경우, 시간상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평일의 육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남편의 육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역시 긴 근무시간이었고 시간적 조건만 주어진다면 이들도 육아에

참여하려는 의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인터뷰 대상자들이 언급했다.

(2). 주말의 육아 분담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에게 붙어서 여성이 자연스럽게 돌봄을 하게 되는 것이 공통점이며 따라서 여성은 필수적으로 일정한 육아 참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 부분 외에 평일에 근무시간으로 인해 육아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남편들은 주말에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쉬운 만큼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게 된다. 평소 직장일로 바쁜 남성들은 주말에 적극적으로 아이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터뷰 사례 중 8사례는 아내와 남편이 5:5로 육아를 분담하고 혹은 남편이 더 육아에 많이 참여한다. 남편이 수행하는 육아 활동도 Masako Ishii-Kuntz(2004)의 연구 결과처럼 "재미있는 활동"과 "필수적인 육아 노동"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 이 남편들은 공원 가기, 산책 가기 등 재미 있는 활동은 물론, 아이 먹이기, 재우기, 씻기기 또는 청소, 빨래 등 가사일도 아내와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3사례가 아내와 남편이 7:3 비율로 육아 분담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비교적 적은 육아 시간에 대해 1사례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가

다소 영향이 있다고 느끼고 2사례는 남편이 아이 씻기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기본적 돌봄 활동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아내만큼 잘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남편의 능숙하지 않은 육아 부분에 대해 여성들은 남편 대신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편하다고 느낀다. 남편이 상대적으로 낮은 육아 참여율을 가지는 이 3사례는 남편의 육아 활동 내용이 뚜렷한 경향이 보인다. 아이와 같이 놀아주기, 공원 가기 등 "재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편이다.

주말에는 거의 같이 해요. (남편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라 같이 공원 가거나 남편이 큰애 수학 공부를 봐주기도 해요. 제가 집에 없을 때는 남편이 아이 셋을 모두 데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저희 집은 다른 집에 비하면 굉장히 남편이 육아를 많이 참여하는 편이에요. 남편이 회사원 치고 주말에는 거의 5:5로 하고 있어요. (대상자 B)

우리 집은 남편이 육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원래도 가정적이고 애기랑도 잘 놀고 가사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먹여주고 씻겨주고, 설거지, 청소, 빨래, 밥도 하고.....정말 저랑 5:5, 가끔 더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애기가 엄마를 더 좋아해서 제가 하게 되는데, 먹여주거나 그런 것 할 때 남편이 그냥 쉬거나 티비 보고 있지 않아요. 같이 집안일을 해요. (대상자 F)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의 평일과 주말의 육아 시간 분담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남편은 높은 육아 참여 의식과 육아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5의 비율로 합리적인 육아 시간을 분담하는 부부가 대다수였다. 이것은 기존연구에 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아버지의 높은 육아 참여도에 있어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아이가 상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아이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서 육아를 하는 되는 것이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육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이 결과는 이연승 등 (201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연승 등(2017)은 아버지가 자녀육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자녀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였고, 99.9%의 아버지는 육아참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녀양육은 부모가 함께 해야 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주제 4.2 외부 도움을 받는 육아 활동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부부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추세로 보인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시간 부족과 피곤함으로 인해 아이를 돌봐주는 데 한계가 있어 타인에게 맡기는 대리양육이 필요하다. 대리양육은 개인적인 대리양육자와 정부의 지원 하의 보육 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Jeon, S. M. 2011). 대리양육자는 조부모나 베이비시터가 있고 실제로 조부모나 친척은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조부모나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조부모는 아이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을 해소해 주고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존재로 인식해 왔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가족해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일차적 대리모로서 조부모를 선호하게 되었다(이현주, 2007). 정부의 지원 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있으며 조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이 또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보육 시설 이용 실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부모의 도움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인터뷰 대상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았거나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맞벌이와 부부 둘 다

학업과 직장일로 낮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낮 시간에 전적으로 육아를 맡거나 상당히 많은 육아 참여 시간으로 도와준다. 이에 도움을 받는 아이 부모는 조부모에게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드리는 식으로 보답한다. 또한 조부모가 바빠서 육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해요. (대상자 K)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시어머니께서 애기 봐주시겠다고 하셔서.....그래서 아파트로 이사 가서 거기서 애기 낳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어머니가) 봐주시고.. 사람을 쓰거나 그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위의 형님들 애기도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어요. (대상자 F)

시어머니가 바쁘세요. (아이를 못 봐주는 대신) 시댁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줘요. 애기 보험료, 분유, 기저귀 비용을 내주고 있어요. (대상자 A)

표3. 조모 중 육아 도움을 주는 쪽과 그 원인

사례	조부모 중 육아 도움을 주는(주었던) 쪽	원인
A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바쁨; 아이가 엄마보다 외할머니 옆에 있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음
B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바쁨; 조부모보다 엄마가 직접 육아하는 것을 선호
C	시어머니	경제적인 이유로 친정 도움을 못 받음
D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건강문제로 할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맡김
E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바쁨;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기 불편함
F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육아에 능숙하자 않아 시어머니가 봐주는 것을 선호
G	시어머니	친정과 거리가 멈
H	친정어머니	친정과 거리가 가까움
I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시댁, 친정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
J	시어머니	시댁과 같이 거주
K	장모	장모와 거리가 가까움

조부모 중 조모가 일반적으로 대리양육을 하는 주체이다. 조모 중에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중 어느 쪽이 육아 도와주는 지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왔다. 조모들의 취업여부, 경제력, 건강 상황, 거주지 거리 등 요소에 따라 육아 도움을 주는 대상이 달라 질 수 있다. 대체로 여성들이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기가 불편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시어머니보다는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출산 직후는 여성에게 체력 회복이 필요한 시기여서 그 시기에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펴주는 경우가 많다.

조부모의 경제력과 취업여부 등 일반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사례 외에 특별한 사례가 있었다. 대상자 한 분은 조모의 육아 능숙도와 육아 경험을 고려하여 육아 경험이 많은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친정에게 맡기면 오히려 걱정이 된다고 느낀다.

친정은 처음부터 못 봐주신다고 하셨고 저도 친정에 별로 맡기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님이 육아 경험이 많으셔서 애기를 잘 보셔요. (대상자F)

한 명의 대상자는 아이와의 애착 형성을 가장 중요시 하며 “독박 육아”를 스스로 선택하여 수행하고 있다. 주부가 되기 전에 학업 공부로 인해 육아 시간이 부족해 친정의 육아 도움을 받았지만 주부가 되고 나서 조부모의 도움보다 스스로가 전적으로 육아를 하는 것을 뚜렷하게 선호한다. 친정과 같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분리된 공간으로 살고 조부모의 도움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한다.

내 아이를 잘 안전감 있게 케어를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성장 발판이 되니까.. 오롯이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했죠. 우리는 친정 부모님의 집에 살고, 친정 부모는 다른 집에서 살고 한 달에 2주정도만 우리 집에 머물다가 다시 가요. 친정 부모가 2주 동안 잠깐 오실 때는 애기 봐주는 것 전혀 없어요. 방이 따로 있고 아예 독립적인 생활을 하세요. (대상자B)

조부모가 많이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에 인터뷰 대상자들은 조부모의 육아 방식과 관념의 다름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들은 조부모의 고정적인 관념을 설득 시켜주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면서 겉으로는 표현을 안하고 속으로 참거나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잘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하고 너무 다른데 실제로 부모님한테 많이 맡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엄마와 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걸 참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저는 말을 안하고 부모님에게 양보하는 편이고요, 겉으로는 갈등이 줄었으나,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조부모님 손에 자랐으니까 애들이 좀 응석을 부리고, 너무 사랑만 받으니까 나약하게 자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상자 D)

할머니가 육아 도와주면 항상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막 싫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능숙해지면서 상황을 대충 풀어나갈 수 있게 돼요. 얘를 들면, 어머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스킬이 생겨요. 아무래도 친정엄마보다는 시어머니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서로 그런 거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어머님도 크게 그렇지 않으시고, 저도 좋게 좋게 넘기려는 그런 기술이 다 쌓아요. (대상자 F)

모든 대상자는 인터뷰하면서 조부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만큼 조부모의 도움은 부모들의 육아 활동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사례는 시댁과 같이 거주하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시부모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시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5사례가 있으며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는 대상자가 4사례 있고 과거에 친정부모 도움을 받았던 경험까지 포함하면 9사례가 있다.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도움을 동시에 받고 있는 대상자가 1사례 있다. 여성이 출산하면서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듦으로 인해 출산한 직후에 대부분 친정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은 돌봄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반면 모든 인터뷰 대상 중 1사례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4명이다보니 혼자 돌보기가 어려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데,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한 것이고 인터뷰 대상자는 베이비시터와 함께 아이를 돌봐주는 식으로 육아를 하고 자신이 집에 없고 전적으로 베에시터에 맡기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한다. 베이비시터에 대한 굉장히 낮은 신뢰도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가족인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 등 시설의 이용은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 보육 시설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질병의 전염 등 우려로 보육 시설 이용에 부모들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낸다.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 손에 있어야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애착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사회에서는 아이를 엄마가 직접 돌봐줘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다. 보육 시설에서 가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이는 역시 엄마가 봐줘야 한다” 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더욱 창출되고 있다. 이에 직장 생활로 시간이 부족해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은 직장보다는 엄마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과 주변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스트레스로 인해 미취업 여성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다. (김기현, 강희경, 1997; 정유진, 전귀연, 2015)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 중 맞벌이인 한 사례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엄마로서 애를 돌봐줘야 하는데 그 어린 애를 남의 손에 맡겼다...어린이집에서 학대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우리애도 당할까봐 걱정하고. 어쨌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나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저도 좀 있었거든요. 매우 마음 아프고 하지만 할 수 없이 내 career를 위해서 아이를 희생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었죠. (대상자D)

맞벌이 여성과 취업 여성은 시간 부족과 신체적 피로로 인해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맞벌이 인 대상자D 는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 직장인 엄마들은 자녀를 어린이집 보내는 것에 강한 죄책감과 자녀에게의 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직업과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중 그녀는 직업을 위해 아이를 희생한다는 느낌이 들며 안 되는 것 알지만 자녀를 많이 돌봐주지 못하는 만큼 그것을 장난감 사주기 등 물질적 행동으로 보상해주게 된다. 또한 이러한 죄책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함께 나타난다. 대상자D는 학대 등 어린이집 사고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고 다른 대상자보다 자녀를 걱정하는 태도가 더 드러난다. 이는 대상자가 맞벌이 엄마로서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더욱 걱정과 염려가 많은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대상자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자의 경우는 첫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이용 경험이 있고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둘째, 셋째 아이의 어린이집 이용에 보다 안심을 하고 걱정을 덜 하게 된다. 이는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관계가 괜찮으면 일찍 보내려고 해요. 첫째 때 보냈던 어린이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둘째를 좀 일찍 보냈고 셋째도 일찍 보내려고 신청했어요. 원장님하고도 친하고 거기 시설 자체가 믿음이 가는 곳이라서요. (대상자I)

3사례는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문제로 약간의 걱정이 든다거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전염병 등 문제만 염려하는 정도였다. 그보다는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집에만 있는 것은 한정적이며 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또래를 만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느낀다고 한다. “아이를 봐주는 것은 당연히 엄마의 책임” 등과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예상보다 적었다. 아이 연령에 따라 부모의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 아이가 유독 어린 나이에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으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경우 외에 대상자들은 어린이집이 아이의 지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아이가 상대적 어린 나이에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에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 아직 "아이는 엄마가 봐줘야 한다"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도 학부모와는 신뢰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어딜 가나 다 관계일 텐데 아이에게도 그런 관계가 잘 돼 있는 선생님 밑에서 저는 (선생님들) 잘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왕이면 걱정보다 선생님들 믿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이들 크면 인간 관계를 할 거잖아요. 그런 (어린이집)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인간관계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자 J)

저는 쌍둥이여서 돌 지나자마자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저도 많이 비난 받았거든요 엄마들한테. 왜 벌써 보내냐, 애기 많이 끼고 있어야지 좋다고.....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 애들은 가서 더

좋았거든요. 가서 더 잘 놀고 적응하는데 1주일도 안 됐어요. 저는 오히려 가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잖아요. 그 안에서 애들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걸 배우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상자 A)

기존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연구는 맞벌이와 취업 여성의 죄책감, 보육 시설 정책과 만족도 등 방면에 집중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보육 시설의 이용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하였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고 느낀다.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장시간 데리고 있으면 특히나 주부인 여성들은 육아의 힘듦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아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엄마들에게 산후우울증이나 아이와 부딪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에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장시간 아이와 같이 있어서 발생하는 충돌 등도 피할 수 있다고 느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개입이 돼야 잘 크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은

다들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갖기보다는 아이에게도 좀 더 자유롭게 커가고 저 또한 자유롭게 일도 하고.....제가 우울한 기운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아이에게도 분명히 그런 기운이 가거든요. (대상자 J)

애들 24시간 힘들게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보다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다가 만나면은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서로한테 좋아요. (대상자 A)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어린이집) 일찍 보냈어요. 저도 저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스트레스도 풀어 나갈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더라구요. (대상자 I)

조부모의 도움과 어린이집 등 시설이 많이 이용되는 만큼 육아라는 것은 한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함께 참여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조부모와의 가족공동체에서 아이 부모는 조부모와 서로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아이의 건강한 인격 육성이라는 공동적 목표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여 안전하고 조화로운 육아 환경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 4.3 육아 과정 중의 양육 스트레스

육아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부모는 실제 개인적인 삶과 취미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부담감과 불편함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육아 과정에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과제, 또한 부모들의 육아 활동 중심과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인터뷰 결과에 따라 육아에서 주로 받는 양육 스트레스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육아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힘듦과 그에 따라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다. 두 번째는 아이를 교육하는 데서 오는 힘든 점이다. 세 번째는 일, 개인의 삶과 육아의 양립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1) 육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막내 낳고 나서 저혈압이 생겨서 지금 조금 무리하면은 쓰러져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짜증날 때 엄마가 받아줘야 하는데, 저도 힘들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서로 같이 훈련 받는 것 같아요. 애기가 훈련 받기 보다는 제가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혈기를 부르게 되고 그런 것 너무 힘들어요. 대학원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니까 집안일만 할 때가 좋았구나 싶고, 그리고 육아보다는 바깥일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고. 육아만큼 힘든 것 없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상자 A)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못해요. 애들하고 막 놀아주다가 갑자기 화나서.....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화내고 있다는 것을.....감정 조절이 안돼요. 그리고 내 몸도 힘든데 애들 있다 보니까 손이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너무 힘든데도 하나하나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대상자 G)

많은 인터뷰 대상자가 공통적으로 “육아 만큼 힘든 것 없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러한 힘듦은 육체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게 되고 과도한 힘듦으로 인해 피할 수 없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그런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어 아이에게 쉽게 화가 날 때가 많다고 한다. “서로

훈련 받는” 과정이 되면서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2) 자녀 교육 측면의 스트레스

만약에 나이들이 비슷하면 수준 맞게 같이 책을 읽어주고 그럴 수 있는데, 5학년, 2학년, 4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공부를 봐줘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힘들어요. 애들 공부가 신경 쓰이지, 먹여주거나 씻기는 것 힘들지 않아요. (대상자 B)

내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내 아이들이고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혼자 자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인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대상자 K)

신체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특히나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아이를 여러 명 키우는 어머니는 처음

출산할 때 신체적 힘듦을 느꼈으나 현재 적응이 되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자녀의 교육과 독립적인 인격체의 양성에 집중되었다. 자녀들의 연령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수준 맞는 교육이나 활동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모든 과정을 따로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부모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자녀에게 강제적으로 부가 시키는 것을 회피하려고 부모는 육아를 하면서 늘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연구 대상자는 스스로 "독박 육아"를 선택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대가족에서 함께 거주하는 환경에서 윗세대 부모로부터 육아 경험과 노하우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비해, 핵가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대 가정에서 특히 처음으로 출산하여 육아를 하게 되는 부모에게 육아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려워 엄마들이 혼자 육아를 직면하게 된다. "독박 육아" 는 엄마들이 조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혼자서 육아를 하게 되는 힘듦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연구 대상자는 스스로 "독박 육아"를 선택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직접적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교육 부분에 더욱 신경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3). 육아와 개인 삶의 양립

일과 가정의 양립 경우가 발생 시, 여성은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미취학 자녀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연령층이고 또한 어머니와 아이의 애착 형성이 필요하며 아이가 어머니 손에 있어야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로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서 느낀 어려움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었다(Campbell, C.S, 2001; 박선영, 윤덕영, 2005; 유계숙, 2008; 김난주, 권태희, 2009). 또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육아가 일-가정 양립에 있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만큼 일-가정의 양립은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며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는 일-가정 양립에 가장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현아 외, 2011)

본 연구의 대상자 중 4사례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이고, 2사례가 학업을 수행 중인 어머니이며, 5사례가 현재 전업주부인 어머니다. 5명의 주부는 출산 전 모두 유치원 교사, 병원 직원, 자영업자 등 일을 한 경험이 있었고 출산 후 경력 단절을 겪었다.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출산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경력단절이라는 점을 느끼며 일을 포기하거나 최대한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출산하기 전에 옷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출산하고 살이 찌고 해서 예전보다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대상자 C)

사회 생활을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사회 생활을 못하니까 인간 관계도 그렇고..... 집에서만 있어서 좀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대상자 E)

학업에 집중하거나 일을 포기 하지 않고 맞벌이 가정으로 살고 있는 여성도 역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확실히 느끼며 "멋진 엄마", "슈퍼 맘" 은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고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일에도 집중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을 느낀다.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힘들다고 해도 내 생활은 어느 정도 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일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육아가 치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일에도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육아를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생각했었던 결혼생활은 육아도 멋진 엄마에 잘하는 일도 엄청 잘하는 그런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생활은 거의 없어졌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대상자 D)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육아하는 것보다 공부하면서 하는 것 더 힘든 것

같아요. 회사는 퇴근 딱 하면 생각 안 하게 되니까..... 근데 공부는 나의 연구가 머리 속에 항상 있고 과제도 끝이 없으니까 퇴근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 경제적 수익이 있는데,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 이익이 없잖아요. 나 자신은 괜찮은데, 시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은 많이 지원해주시긴 한데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박사 끝내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상자 F)

주제4.4 육아 분담에 따른 결혼 만족도와 부부 관계 변화

자녀양육은 결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부부 서로의 가족 내 지위와 역할 분담이 결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남성은 가족을 유지하는 경제적 역할을 맡아왔고, 여성은 자녀양육과 가사 노동의 역할을 맡아왔다. 따라서 수입의 격차에 따라 남성은 가족 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서로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불평등한 관계가 생일 수 있다. 최근 들어 평등한 가치관과 여성의 역할 변화가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되어 여성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출산과 육아는 결혼 생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결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결혼 만족도도 변화할 수 있다. 결혼 전 여성이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이 실제 결혼 생활에서 육아 문제와 부딪치게 되면서 지금의 삶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게 될 수가 있다. 인터뷰 대상 중 대부분은 현재 배우자와 합리적인 분담으로 육아를 진행하고 출산 초기보다는 배우자가 훨씬 더 육아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는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가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출산 초기에는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가 배우자와 육아로 인해 많은 다툼과 싸움을 경험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다툼의 원인은 남성의 소극적인 육아 참여도와 여성의 육아 힘듦을 이해해주지 못함으로써 시작 되었고 여성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 중요성과 합리적인 분담의 필요성을 배우자에게 계속 설득시키고 최대한 대화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걸쳐왔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 남편의 적극적 육아 참여: 처음부터 그랬던 건가?

앞에서 살펴본 인터뷰 결과에서 다수의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5:5 혹은 남편이 더 참여하는 높은 육아 분담 비율이

나타난다. 아직까지는 남녀의 육아 참여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남성은 직장 생활이 삶의 대부분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 참여가 힘든 현실이 있으나 남성들은 점점 긍정적인 육아 참여 태도를 가지게 되고 예전과는 달리 새로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아버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들은 애초부터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인가?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사노동 분담을 찾는 과정에서 부부 간 늘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 (은기수, 2009). 인터뷰 대상 중 남편이 원래 가정적이라고 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모두 출산 초기에 남편과의 싸움이 많았고 끊임 없이 남편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게끔 협상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남성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성의 장시간의 노력과 협상 끝에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화와 설득의 과정에서 남편이 육아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부장적이었던 전통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

12년 동안 협상했어요.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아빠도 어느 정도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2년 동안 남편을 계속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전혀 육아 참여를 하기 않았어요. 자기 생활을 고집하려고 그랬고, 나는 나의 삶을 다 내려놓았는데.....초기에는 남편이 이해 못했어요. 제가 계속 아빠의 참여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 분담을 5:5로 끌고 왔어요. 12년 동안 싸운 결과예요. (대상자 B)

지금도 제가 주도권 싸움 중이거든요. 끊임없고 서로 누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집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일을 하고 지위를 차지하는냐에서 약간 옥신각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제가 위인 것 같아요. 남편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편인데 제가 많이 굴복을 시킨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내 희생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편) 본인도 인정을 하고..... 가부장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온순해지더라고요. (대상자 D)

여성의 끊임 없는 협상으로 남편의 육아 참여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경우와 달리, 3사례는 남편을 설득 시키는 과정이 있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 협상을 포기하였다. 3사례는 모두 여성은 전업주부이고 이러한 경우는 여성이 주부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주부들은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육아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의 적은 육아 참여에는 직장이 바빠서 남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선택했다.

신랑이 육아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왜 기저귀도 못 갈고 애 목욕도 못 시키고 왜 내가 다 하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신랑이 많이 바쁘니까 이해하게 됐어요. 평일에는 그냥 제가 하는 걸로. 지금 결혼한지 6년 됐는데,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신랑도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고 저도 엄청 큰 기대는 안 하고. (대상자 H)

(2). 윗세대 가족으로부터 받은 영향.

윗세대 부모는 자녀의 가치관과 사회성 육성 중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가치관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윗세대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았다면, 현세대 부부의 부부관계가 비교적 좋게 나타나며 반면 윗세대 부모의 부부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은 소극적인 영향을 받아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 (Goldenberg. I, Goldenberg. H, 2000)

이 시대의 부모는 윗세대 부모들의 육아와 가사 분담 등 가족

분위기를 봐왔기 때문에 윗세대 가족으로부터 받은 가족 내 분담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인터뷰 대상 중 다수는 윗세대 가족의 모습이 자신에게 배우자의 선택부터 육아분담까지 영향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가부장적인 전통 가족 형태가 많았고 육아와 가사 분담은 여성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육아와 가사분담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가 신세대 부부에게 가져온 영향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여성에게는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의 이미지와 반대인 가정적인 배우자를 찾고 싶은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남성에게는 윗세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혹은 윗세대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교육으로 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윗세대 가족의 육아 분담과 가족 분위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다수의 젊은 세대는 가부장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고 가족 내 성 역할의 평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으로 적용이 된다.

김수정, 조효진 (2016)의 연구에서 윗세대 부모는 현시대 부모에게 적절한 롤 모델이 될 수 없고 현시대 남성은 새로운 아버지상을 찾으려고 하여 일-가정 양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다. 대부분 대상자는 윗세대의 가부장적인 가정 가치관으로부터 소극적인 영향을 받아 윗세대 같은 가족 구조를 회피하려고 배우자의 선택부터 뚜렷한 의향이 보이고 결혼 후에도 계속하여 평등적 성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노력한다.

저는 엄마가 힘든 모습을 봐왔고,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어서 식사하고 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주는 그런 간단한 행동도 안 해서 저는 그걸 너무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도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원래도 가정직인 편이지만 제가 계속 설득을 했죠. (대상자 A)

제 생각에 그 (남편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영향이 어머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아들이 부엌에 들어오면은 여긴 남자들 오는 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엄마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남편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어머님이 하는 거를 남편이 항상 도와주고, 결혼하고 나서도 " 와이프한테 잘해라, 집안일 많이 해라" 그렇게 배웠고 그런 것 같아요. 남편도 엄마의 힘든 모습을 보고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상자 F)

(3). 육아로 인해 생긴 부부 관계의 변화: 대화가 없어졌다 VS 대화가 많아졌다.

출산과 육아는 결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중 인터뷰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부부간 대화의 변화를 가장 강하게 느낀다. 대화의 시간, 주제, 방식 등의 변화가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애기 얘기 위주로 하게 되고 부부 서로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 없어지거나 이야기 거리가 없어진다고 한다. 특히 평일에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 거의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없다고 느낀다. 귀가를 하자마자 바로 육아가 벌어지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다 보니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대화를 할 틈이 없고 하루가 애기 재우는 것과 동시에 끝이 난다. 바쁜 일상 생활을 지내면서 그들은 집에 있는 동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그 대신 메신저로 대화 나누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인터뷰 대상자는 서로에 대한 대화가 줄어졌지만 아이에 대한 이야기 거리가 많이 생겨서 오히려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진다고 한다. 아이의 사진과 소리 등을 배우자에게 보내면서 서로 유대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로 인해 서로의 중요함을 한 층 더 깨닫게 된다.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남편도 지치고 저도 아침에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애들 재우고 서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관계가 나빠진 것 아닌데.....서로 좀 소통이 돼야지.....그런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요. (대상자 G)

애들 때문에 대화가 없어진다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애들 얘기는 많아져요, 근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애들 재우고 지쳐서 거의 같이 쓰러져서 잘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서든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지 저희가 사니까.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그래서 신랑과의 관계가 조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육아 때문에 많이 싸우고, 또 아이들 때문에 사이가 좋아질 때도 많아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애기가 생겨서 신혼 생활이 없었어요. 신혼이 없었기 때문에 둘만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대상자 A)

삶이 완전히 애기 위주로 돼요. 우리 한 시간 동안 애기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대화를 해도 애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우리 인생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돼서..... 우리 인생, 우리 삶에 대해 얘기하자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얘기 많이 하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애기 낳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 이런저런 이야깃거리가 많고 그랬는데, 지금도 할 얘기가 없지 않은데 가끔 어색할 때가 있어요. 평일에는

애기 케어 하고 정신 없이 집안일 하고 그럴 때는 같이 쓰러져서 다 자요. 그래서 메신저로 얘기해요. (집에서는 얘기 할 시간이 없어서.....) 현실은 이렇구나.....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상자 F)

부부간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이들은 답답함과 어색함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대화가 많아질 수 있게 노력을 하나 그만큼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대상자들은 “현실은 이런 것이다”, “어쩔 수 없다” 하며 육아가 가져온 삶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부터 발생한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 변화에 결혼 만족도가 변화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육아 활동과 여가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이러한 활동이 결혼만족도의 값을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김지혜, 장연진, 김희주, 2013). 그러므로 육아로부터 발생한 부부관계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부부간 원활한 의사 소통과 여가 활동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부부 상호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의 기술을 통해 높은 결혼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부 결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관련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만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가 어려워 실제 참여도가 높지 않다. 육아와 여가 활동을 조화롭게 하는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상담

센터의 홍보와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실태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출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 중 3사례가 육아 분담을 여성과 남성이 7:3 비율로 분담하고, 8사례는 5:5 비율로 비교적 합리적인 육아 분담을 하고 있고 남성의 육아 참여 의식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합리적인 육아 분담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대게 처음부터 남성이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2사례를 제외한 9사례는 육아 시작 초기에 부부간의 싸움과 갈등을 경험하였고 여성은 남편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긴 시간에 걸쳐서 남편과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남편의 적극적 육아 참여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이연승 등 (2017)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서와 아버지도 육아에

함께 참여해야 자녀의 건강과 인격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가정 내 합리적인 육아 분담은 강한 성 이데올로기 가치관보다는 자녀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은기수(2009)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성의 육아참여가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지만 남녀 평등이라는 성 평등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성의 긴 설득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남성의 육아참여는 자신이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당연한 차원이 아니라 여성을 도와 주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된다면 육아초기 부부는 늘 육아 문제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늘어나고 그에 걸맞게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지만 육아라는 난관 앞에서 유독 여성이 자신의 사회참여의 욕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인 성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필요하다. 남성이 성 평등 가치관을 갖게 되어 가정 내 육아에서의 평등이 실현되면 육아를 위해 사회생활을 포기하던 여성들이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참여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가 좀더 수월해 질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들도 자신이 경력단절 여성이 된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과 좌절감을 안 고 살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로 인해 자신의 일과 꿈을 포기한 여성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켰지만 자신의 삶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한국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성장 해 가는 면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의 가치관 교육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정 내 육아가 남성이 해 주는 육아가 아니라 여성과 함께 남성도 당연히 맡아야 하는 남녀 평등 육아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육아 초기에 여성이 남성을 설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그 설득이 성공하여 남성의 육아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이 육아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가정 내 위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육아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부의 육아고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의사소통기술 향상 교육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의 육아분담 비율에서 남성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남성의 긴 노동시간과 늦은 퇴근시간이 평일의 육아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김용익, 김낙흥(2015)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남성은 육아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나 근무시간으로 인해 참여를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유명무실한 남성 육아 휴직 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 휴직 후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승진과 경력에서의 차별 폐지 등으로 남성들이 합리적인 육아 참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간의 부족과 함께 남성들이 육아참여에 제한적인 요인은 육아 경험이 부족하여 육아 방법에 대해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개설하여 남성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재 사회 복지의 개선과 새로운 육아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개설로 아버지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문화적 환경에서의 아버지 육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연승, 최진령, 김현정, 2017)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버지를 위한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의 개설과 이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모든 대상자는 대리양육 경험이 있다. 조부모는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를 우려할 필요 없어서 실제로 가까운 친척관계로 조부모가 육아에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조부모의 대리 양육 외에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무시간으로 인해 육아 참여에 제한을 받는 맞벌이 부부는 낮 시간 동안 육아를 조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보육 시설에 맡긴다. 조부모의 대리양육 보다 보육 시설의 이용은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어서 대상자들은 보육시설의 사고, 신뢰성 문제 등으로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느낀다. 이는 정유진, 전귀연(2015)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기존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의 죄책감, 보육 시설 정책과 만족도 등의 방면에 집중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보육

시설의 이용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하였다. 아이를 장시간 데리고 있으면 육아의 힘듦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아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엄마들에게 산후우울증이나 아이와 부딪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에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장시간 아이와 같이 있어서 발생하는 충돌 등도 피할 수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위주의 보육시설 정책에서 육아를 하는 전업주부들을 위한 보육시설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사회에서 육아를 하는 전업주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집에서 놀면서 아이를 맡긴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어머니의 육아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어머니가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전업주부의 육아를 돕는 보육시설의 확충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일하는 대상자와 학업을 수행하는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대상자 중 5명의 전업주부 모두 출산하기 전에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었다. 경력 단절로 인해 삶의 큰 변화를 느끼고 집에만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지 위해 일-가정 양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장 내 탁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육아휴직 후의 복직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 등 직장에서의 육아를 돕는 정책들과 가정 내에서의 평등한 육아를 위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탈피한 남녀평등 육아를 위한 성 평등 가치관 교육 및 캠페인의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 맞벌이와 취업 여성의 육아 시간이 부족하여 대리양육으로 받는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 내에는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살펴보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맞벌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육아 관념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완화해준다. 특히 취업 여성에게 경력 단절과 출산, 육아로 받을 수 있는 직장 생활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많은 상황에, 직장은 취업 여성이 그러한 소극적인 인식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직장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직장 구성원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게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형태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현실적 제약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여성이 대부분이고 남성의 육아 경험을 직접적으로 취재를 못했다. 연구 대상자의 직업은 주부, 직장인, 학생으로 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대졸 이상인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반적 육아 실태를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더 다양한 학력과 직업을

가진 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실태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1차자료

통계청(Statistics Korea: www.kostat.go.kr)

국문 논문

은기수,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김외숙, 박은정, 2012. “기혼취업남성의 여가제약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이연승, 최진령, 김현정, 2017. “아버지의 육아참여에 대한 인식, 실태 그리고 어려움.” 육아교육연구 2017. 제 37 권 제 4 호, 811-829

신용주,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참여에 관한 문헌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 구소, 13

조미라, 윤수경, 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Vol. 44, 2014. 6, pp. 5-30

안수미, 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조미환, 임정빈, 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18

김수정, 조효진, 2016. "미취학 자녀를 둔 X세대 남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기현, 강희경, 1997. "논문편: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정유진, 전귀연,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대리양육 유형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타인양육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20, No. 4: 673-691

박선영, 윤덕영, 2005.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유계숙, 2008.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6(5): 1-11

김난주, 권태희, 2009. "기혼여성의 직장, 가정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 여성연구, 79(1): 43-70

이현아, 김선미, 이승미, 2016.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2호(2016 여름): 231-261

김용익, 김낙흥, 2015. ‘아빠학교’의 아버지들이 양육참여를 통해 겪은 삶의 경험 탐색.” 육아지원연구, 10(2), 191-215

공정원, 엄명흉, 2016. “근로 시장에서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 계획·임신·출산·육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직접·간접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주은성, 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45권 3호. 2014 pp.5-34

김소영, 2016.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변화와 관련요인- 1999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김소정, 진미정, 2016. “부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87-195

진미정, 노신애, 2012. “서울시 거주 미취학자녀 양육 부모의 지역사회 범위인식과 가족친화성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63-363

강이수, 2005. “여성의 일-가족에 대한 태도와 ‘선택’의 문제.”

김지혜, 장연진, 김희주, 2013.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화 유형과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8권 3호, 255-278

고선주, 1996.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 이후 결혼 적응.”

고선주, 옥선화, 1994.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Ⅱ-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 결혼 적응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1(3): 127-142

이현주, 2007. “대리양육 위탁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정 -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노인복지연구 37권0호, 361-391

이현주, 2007. “조부모 대리양육 아동의 장기위탁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8권6호, 53-72

이선명, 여정성, 2016. “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의 시간사용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541-550

이삼식, 2006.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승주, 2005.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 나라경제”. 16(9), 19-22

영어 논문

Fuwa, Makiko,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Sayer, Liana,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 84(1)

Lachance-Grzela, M., and Bouchard, G., 2010, “Why do women do the lion’s share of housework? a decade of research”, Sex Roles, 63(11-12)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

Blair, Sampson Lee, and Daniel T. Lichter., 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Mederer, Helen J. 1993. "Division of Labor in Two-Earner Homes: Task Accomplishment versus Household Management as Critical

Variables in Perceptions about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Masako Ishii-Kuntz, Katsuko Makino, Kuniko Kato and Michiko Tsuchiya. 2004. "Japanese Fathers of Preschoolers and Their Involvement in Child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6, No. 3

Hook, Jennifer.,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Jeon, S. M. , 2011.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childcare services: A study targeting childcare services for children below two years. "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7(2), 77-101

Campbell, C.S. 2001. "Work cultures and work/famil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348-365

Belsky, J. 1985. "Exploring Individual Differenced in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the Role of Violated Expect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1037-1044

Goldenberg, I.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 Pacific Grove." CA: Brooks, Cole.

Belsky, J. & Hsieh, Kuang-Hua ,1998. "Patterns of Marital Change During the Early Childhood Years: Parent Personality, Coparenting, and Division-og-Labor Correlates. "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4), 511-528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Abstract〉

With the rapid modernization and economic growth, Korean society is facing the age of low fertility. As the number of women stepping into the labor market increased, dual – income families became more generalized, resulting in the change in the traditional gender role allocation in the family where men take in charge of paid work to secure economic power while women do the unpaid work including childcare and other housework. Korean males share relatively less time for childcare than females. However, recently, conventional social awareness towards housework allocation is getting changing, encouraging Korean males allocate more time to participate childcare and housework related activities.

Preschoolers are the group that needs the most care and time. This study focuses on parents with preschool children, holding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care in Korea by analyzing childcare contribution, childcare experience, and difficulties as well as stress of the couple who have preschool childr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ight out of the interviewees have relatively reasonable child-rearing in a ratio of 5: 5, and males of them have a positive attitude to participate in child-rearing. However, the ratio of 5:5 is not usually thoroughly engaged by men from the beginning. Woman usually experienced conflicts and negotiations with her husband over quite a long time, finally emancipating herself with the overwhelmed housework.

Second, all of the interviewees have received the help of child caring, such as grandparents' help and childcare facilities. The interviewees have a positive attitude of childcare facilities. Sending children to a day care center is also a way to enable mothers being free from postpartum depression. Parents felt that they had the time to enjoy their life when child went to the daycare center, which also lowers the possibility of the conflicts within their other different-age-raged children.

Third, as it has been clear in previous studies, the subjects who are working or studying are experiencing the difficulties of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in common. All of the women who were full-time housewives had worked before, while suffered a career break due to childbirth, bringing great changes in t

heir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olicies to solve the unbalanced intra-household labor allocation as well as prevent the career interruption of women.